

저주가 아닌 새 창조의 길로 다른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길을 여는 모습으로 사용되
어진다고 선언하고 선포했을 때 마음 한구석으로 눈물이 났습니다.

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겠지만 내 원
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, 나 역시 주
님 우리가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
기도합니다라고 순종하고 싶습니다. 그리하여 우리의 흠어짐이, 우리의 나누어짐이
더 큰 은혜로의 인도하심으로 전환되기를 믿으며 따르기로 선택합니다.

- 기도제목 -

1. 예수님처럼 하나님앞에 순종할수 있도록